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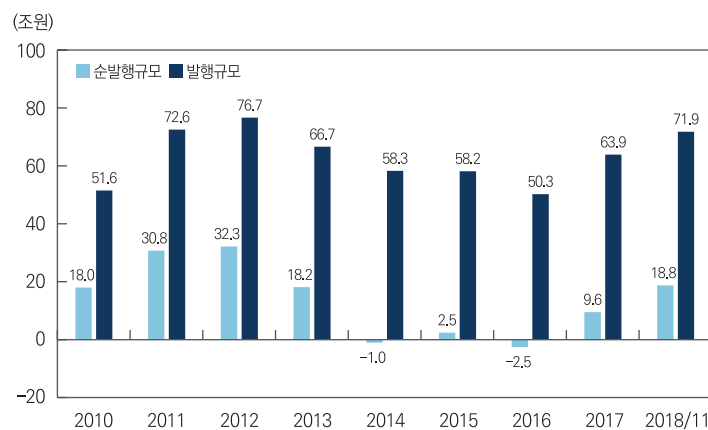
금년중 국내 회사채 발행 현황 및 특징

- 금년중 회사채 발행규모는 정책금리 인상 이전의 선제적 자금조달 및 기존에 발행된 회사채의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 증가
- 신용등급별로는 우량채를 중심으로 편중되었으며,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 증가 등으로 신용스프레드는 최근 일시적으로 하락
- 최근 회사채 발행 급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액중 회사채 비중은 예년 수준보다 하락

□ 금년중 회사채 발행규모¹⁾ 및 순발행규모는 정책 금리 인상 이전의 선제적 자금조달 및 기존에 발행된 회사채의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 확대

- 회사채 신규 발행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증가하여 2018년 중에는 71.9조원 수준까지 확대
- 또한 2014년 및 2016년에는 발행규모 감소로 순상환이 이루어졌으나, 2017년을 기점으로 순발행으로 전환된 이후 2018년 중에는 18.8조원까지 확대
 - 2018년 중 회사채 상환규모는 53.1조원 수준으로 회사채 발행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한 2012년(44.5조원)과 비교했을 때 상환규모가 크게 증가

회사채 발행 및 순발행규모 추이



주 : 2018년은 1월~11월 19일 중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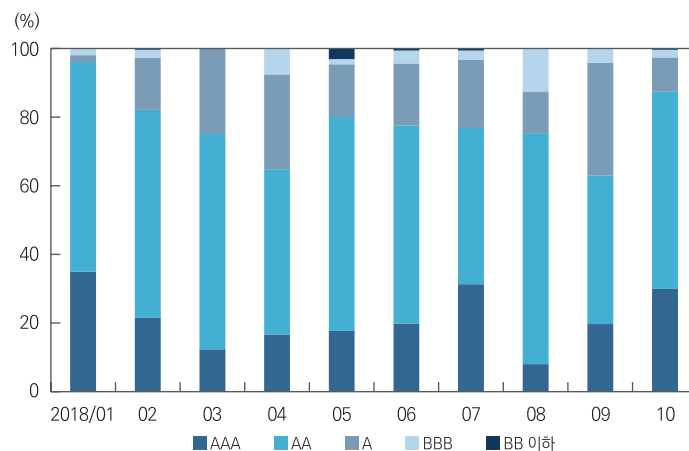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

1) 해당 자료는 장외시장의 회사채 자료이며, 금감원의 기업의 직접금융중 회사채는 위의 통계와 상이함

□ 신용등급별로는 우량채를 중심으로 발행이 편중되었으며,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 증가 등으로 신용스프레드는 최근 일시적으로 하락

- 신용등급별로는 A등급 이상의 우량채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발행이 이루어져 편중된 모습
 - 2018년 10월 기준 전체 발행규모대비 A등급이상의 회사채 발행액 비중은 97.4% 수준으로 전체 발행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이중 AA등급이 57.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(기타사모 제외기준)
 - 같은기간중 BBB등급 이하의 발행비중은 2.6%로 신용등급간 발행규모의 양극화가 지속

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비중(2018년중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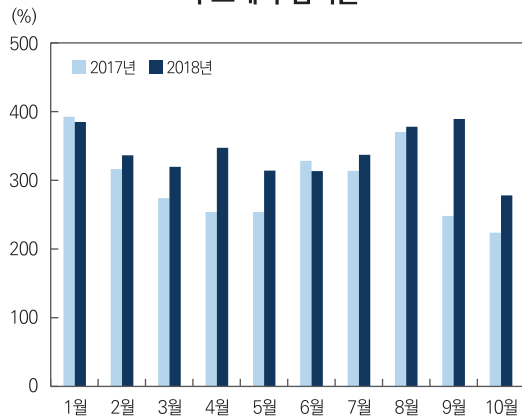
주 : 보증사채 및 기타 사모 형태 제외 비중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- 최근 회사채 발행시 수요예측 참여율의 상승 등 회사채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최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일시적으로 하락²⁾
 - 수요예측 참여율의 경우 2018년 중 월평균 340%(전년대비 42.3%p 확대)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 지난 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41%p까지 확대되며 높은 수준을 유지
 - 특히 대한항공, 한화건설 등의 기업들의 경우 수요예측참여금액이 예측금액보다 확대되면서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 되기도 함
 -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증가로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2018년 중 신용스프레드는 한때 0.434%p까지 하락한바 있음(10월 15일, 3년물, AA- 등급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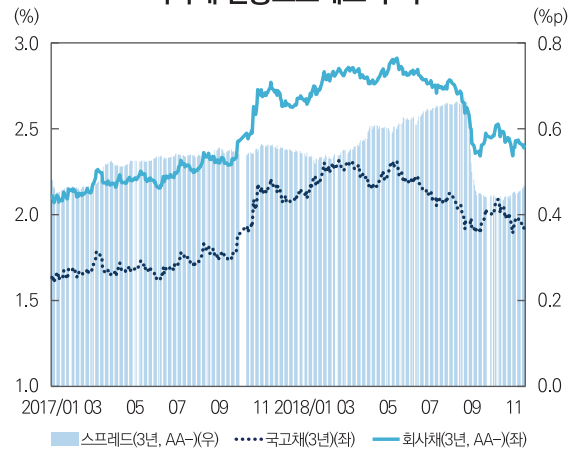
2) 원승연, 이진범(2008)의 연구에 따르면 개별 채권의 유동성 및 회사채 수급 요인 등이 신용스프레드 결정 요인으로 분석된바 있음(원승연, 이진범, 2008, 회사채 시장의 특성과 신용스프레드 결정 요인, 금융연구 21-2)

수요예측 참여율



주 : 참여율=수요예측참여금액/수요예측금액
 자료: 금융투자협회

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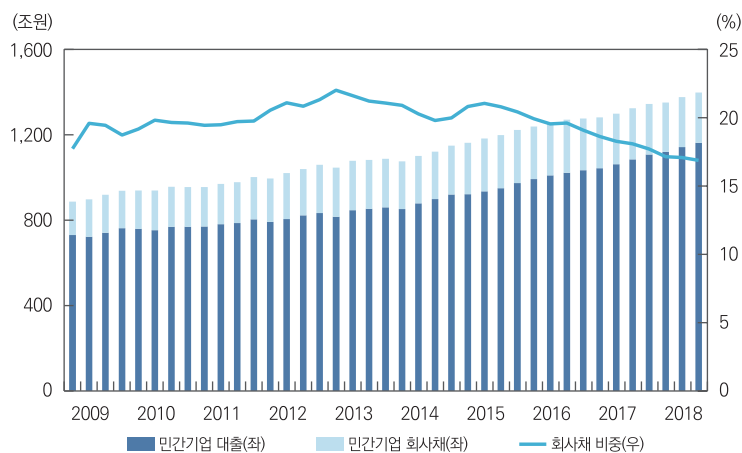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

□ 최근 회사채 발행 급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액중 회사채 비중은 예년 수준보다 하락

- 민간기업의 부채중 장·단기 대출 및 회사채 잔액은 2018년 2/4분기 기준 1,400조원 수준으로 이중 회사채 잔액은 234.6조원 수준
-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순발행액 규모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대출시장의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체 부채잔액대비 회사채 잔액 비중은 2018년 2/4분기 기준 16.8% 수준에 그침

민간기업 부채 및 회사채 비중 추이



주 : 민간기업 부채는 장·단기 대출 및 회사채를 의미, 회사채는 기업어음 및 해외채권 제외 기준
 자료: 한국은행

연구원 이정은